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단기선교는 주님의 선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 습니다.” 이것은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입니 다. 많은 분들이 수개월 간의 준비와 심사를 거쳐 해외선교지로 파송이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놀라운 일들이 단기선교 현 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행 20:23). 수많은 팀들이 선교지에 나 야가 한 것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복음 전파’였습니다(행 1:8).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특별한 수단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고, 이 단순해 보이는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셨 습니다(고전 1:21). 천사도 홀모함만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는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2009년 하반기 선교준비를 위한 선교훈련 (CMTC)이 9월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기 회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복음이 먼저 한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막 13:10).

*오늘, 찬양예배 시 2009년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칼릴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김성관 위임목사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는 최 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 이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 으로 네 둘 사이에 더하여 청 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사 54:11~12). 약 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는 교회에는 분명 상처가 있다. 그러나 이 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꾸미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 에 기초할 때 아름다움이 전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님들 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움이 있다(엡 2:20~22). 십자가의 은총이 이것 을 가능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꾸며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신자들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사 54:13~14).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자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골 3:1~4).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신자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다음 호에 계속)



WHAT WE SHOULDN'T LOVE

⁽¹⁵⁾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¹⁶⁾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¹⁷⁾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ohn 2:15-17)

The Christian life is built on love, and is all about love. Believers in Jesus receive a love that gives them a new quality of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Eternal life is God's gift of love to everyone who places their trust in Jesus. God loves the people in the world, not Satan's world system. The extent of God's love is shown in the fact that Christ died for people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God loved us first, and we can only love Him and others through Christ. God is love and He can be known only by those who live in love,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Jn. 4:10). We could not know how, nor be able to love God if He had not first loved us. One of the most in-depth definitions of love is found i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1Cor. 13), which speaks about the greatness and supremacy of godly love. We are called by God to love people in the same way that He loves us,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who does not love abides in death" (1Jn. 3:14). Loving others should be unspoken,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 or with tongue, but in deed and truth" (1Jn. 3:18). Just as the Bible speaks clearly about what we should love, it also mentions what we should not love.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should not love as Christians. Let's look at some of love's limitations.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not love sleep, "Do not love sleep, or you will become poor..." (Prov. 20:13). The Bible warns us about the dangers of laziness. We need to keep busy in serving the Lord. We are promised eternal life, but this earthly life is very short. Earthly time is precious compared to eternal life. As such, every day that is given to us deserves our best efforts for Christ. God calls workers, and the devil calls shirkers. Moses and David were tending sheep, Elijah was plowing a field, and Peter, James, and John were fishing when God called them. God calls busy people. It's so sad when they respond that they're too busy for God. Paul preached day and night with tears for three years, "Therefore be on the alert, remembering that night and da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I did not cease to admonish each one with tears" (Acts 20:31). Now that's a busy person! God calls His children to serve, but it is not our service that saves us. We are only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God works through us to accomplish His work. If you're not dying, then you should be busy.

The Bible says that we are forbidden to love this world,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1Jn. 2:15-16). Worldliness is the devil's playground, and he loves to toy with our sinful nature.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have forgotten the concepts of holy living. They've strayed into dangerous territory, and need to re-examine their lifestyles and revisit God's direction toward holiness. God calls us to live in this world without being worldly. We are the light that shines on darkness. We are the children of God who bring Him glory. We are God's messengers, sent out to deliver the good news. The world's system is against God, and believers are not to love at all that which goes against God. God loves the people of this world, and calls us to love them, too.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not love money,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Mt. 6:24). 1Timothy 6:10 says,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sort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God teaches us, "If anyone wants to sue you and take your shirt, let him have your coat also" (Mt. 5:40). How can anyone calculate the cost of heaven? The rich ruler, who loved God and kept His laws, came to Jesus for further instruction. Jesus told him to sell everything, give his proceeds to the poor, and then follow Him, "But when he had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rich" (Lk. 18:23). This man was so rich that he calculated the cost of following Jesus and couldn't do it. His attachment to material things kept him from entering the Kingdom of God. He loved the Bible, but he loved money, too. Zaccheus was a rich tax collector, but when he met Jesus he sai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Lk. 19:8). Jesus told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Lk. 19:9). Can you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en? Our time, talent, and money should be spent for Christ. What are you doing with these things now? What's going to be of real value to you when you stand before Christ?

My dear friends, the Bible tells us that God loves us and wants us to love others. Today's Bible verse says,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Jn. 2:17). God teaches us what we should and should not love. Open your heart to hear God's word, and let it change you forever. Amen. 

다음 주일 설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¹⁵⁾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¹⁶⁾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¹⁷⁾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영원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요일 4:10).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며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심오한 정의들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지고지순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요일 3:14).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행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듯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성경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곤하게 될까…”(잠 20:13).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영원한 삶을 놓고 볼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사탄은 게으름뱅이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모세와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였고, 엘리야는 발을 일구는 농부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31). 바로 저런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요일 2:15-16).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 된 본성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개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위험한 지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검점하고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디모데전서 6:10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옷까지도 가지고 하며”(마 5:40). 어느 누가 천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 한 부자 관원이 더 나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뒤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막 10:23).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비용을 계산했고 결국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찰이나 갚겠나이더”(눅 19:8).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로다”(눅 19:9).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매순간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

성경이 답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

(시편 97:10~12)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마 6:24). 그런데 지금 자신을 살펴보자.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도 따르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안전을 선택하자. 위험을 선택하지 말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안전을 선택한다(시 97:10).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중간 지대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을 사랑하되 악은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예수님을 믿자(롬 12:1~2). 이것이 제일 안전하다.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악을 선택하는 위험한 꾀예를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안전을 선택하자.

빛을 선택하자. 어둠을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빛을 선택한다(시 97:11). 빛과 어둠은 분명하다. 절대로 섞일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선택한 사람이다(요 8:12).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어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후 6:14).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선택하자.

기쁨을 선택하자. 후회를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선택한다(시 97:12). 빛을 선택할 때 기쁨은 따라온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특권인가!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요 14:27).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줌과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자(빌 4:7).

십자가와 관계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위험하다. 모든 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공하는 안전을 선택하자.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기쁨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의심은 없다. 적당히 눈치를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대답이시며 진짜이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강해 85

예수님의 죽음
(15:33~41)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한창 목욕을 받고 있을 때 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다(막 15:33). 월식이나 일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둠이 무려 세 시간이나 지속되었던 이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구약성경을 볼 때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겔 32:8 ; 욥 2:31). 구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구시는 율법에서 정한 기도시간(행 3:1)이며 화제(출 29:39,41)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 이것은 시편 22:1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승천하였던 엘리야선지자(왕하 2:11)를 부른다고 비아냥 거렸으며, 고통을 덜어주는 신포도주를 주려는 사람을 막으며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을 하러 오는지 보자고 하였다(막 15:35~36).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신 뒤 죽으셨다(막 15:37 ; 눅 23:46).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세 겹으로 된 성령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막 15:38). 속죄의 제사를 위해 오직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는 휘장(히 9:3)이 찢어진 것이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따라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한 유한한 제사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한다(히 6:19~20, 10:20).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뜨려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고후 5:19,21).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신비이며 은총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막 15:39). 이 고백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와 똑같다(막 1:11).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예수님의 곁에는 12제자들은 없었고 예수님께 열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여자들만이 있었다(막 15:40~41 ; 눅 8:2 ; 마 27:56).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길을 막기도 했고, 귀신도 들렸었지만 변화되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다(막 16:1).

예수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갈보리와 성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할 뿐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세상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초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은가?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 반면에 십자가를 붙들 때 죄인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빨라진 발걸음

희망을 입을 만큼 강렬한 피아펄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사역에 임했다.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피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빠도 복음 듣는 것이 더 급하다.”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거부하는 그들에게 열다섯 문장을 도박딱박 전하고, 열점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금실금 웃으며 복음을 비롯키라도 하듯 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얹혀 손을 꼬옥 잡고 진지한 모습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게 한 다음 열점기도를 시킬 때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 주시는 것처럼 그들도 바짝 긴장해 따라하며 “아멘.”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서 사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을 아나니 알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땀방울이 온 얼굴에 줄줄 흘러내려 눈이 따갑고 손으로 계속 땀을 훔치면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도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대안들을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평안 함으로 이 더위를 잊게 해 주셨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오갈 때 우리는 차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찬양을 불렀다. 이번 선교는 참 재미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감사가 넘쳤다. 이제 이곳에서 주님 전도를 하더라도 선교 사역처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몸은 피곤했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내가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끄심에도 믿음에 연약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번 사역을 통해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이다.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나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다음 만날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두연(권사, 4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5일(화) - 9월 3일(목)	21교구 3팀	김재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8일(화) - 8월 27일(목)	18교구 4팀	박미연
8월 20일(화) - 8월 27일(목)	에바다부 1팀	윤명범
8월 21일(금) - 8월 29일(토)	15교구 2팀	이병근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21교구 2팀	박영근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18교구 3팀	김영한
8월 11일(화) - 8월 19일(수)	10교구 3팀	최영인
8월 14일(금) - 8월 21일(금)	7교구 2팀	이연범

선교일기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선교사입니다!

첫째 날 공항에 내리니 뜨거운 공기가 후~. 더위에 약한 나는 겁도 살짝 났지만 마음을 다지고 충열하겠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아, 기쁘다. “주님! 우리 예배죠?”

둘째 날 밤새 뒤척이며 전 설을 자고 나간 아침 서역지, 사후나 탐 안에 있는 듯한 더위이지만 ‘더운 나란데 이 정도는 돼이지.’ 위로하며 태양빛 아래 땀 흘리며 전도할 사람 찾아다니는 팀원들 보니 다들 잘 견딘다. 우리에게 자릴 내주며 관심 보이고 영적기 도까지 잘 받아들이는 그들 때문에 더위도 잊은 채 저쪽 서역도 기쁘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야 “아구, 더워라!”

여섯째 날 주일예배 후 오호 놀게 찾아간 밀림 속 마을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나 보다 싶다. 많은 팀이 다녀간 곳이라 ‘예수님 못들어 왔단 곳’이 그리 많을까? 했는데 어쩔 구석구석 농진 마을을 찾아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감사함으로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전한다. 그들에 대한 부족한 사랑을 회개하며 사랑이 생겨남을 느낀다. “여기가 좋아요.”

셋째 날 이제 언어도 제법 잘 되고, 찬양과 율동도 능숙하게 되는 듯하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냉랭하지만 해 안따마웠고 그럴수록 내 힘으로 그들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도구일 뿐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들어다보며 복음 전할 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수가 없다. “우리 도구 일뿐이니 맘껏 사용하세요.”

일곱째 날 이제는 좀 지친다. 더위 먹어 머리가 아프고 헛바늘도 여러 개 돌아 아프다. ‘하나님도 칠 일째 쉬셨는데 자식들도 쉬면 안 되나?’ 싶었다. 그럴 수 없는 일. 힘 내자 싶어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전도지 행거 들고 다들 전투장으로 향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워 땀과 오물로 번쩍된 그들의 등과 어깨를 어루만지며 껴안고 정성을 다해 복음을 반복해 전하자 변하는 그들의 안색과 눈빛들... 성경에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완강한 고집도 “아멘.”으로 무너졌다. 전도지가 없어 돌아오는 오후에 마지막으로 들른 마을. 찬양으로 온 마을 사람을 모두 모이게 한 후, 30명쯤 되는 어린이들을 보고 율동을 시작하자 어름들까지 합세해 마을 축제가 되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영접키까지 마친 그들도 무척이나 기뻐도 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흘째 날 우리 팀원들은 절지도 앉는데 다들 힘이 좋으시다.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날이 갈수록 불이 붙어, 가는 곳마다 눈물과 은혜의 부흥회를 연다. 교회에서 훈련시킨 보람이 이런 것이라니 실다. 음식도, 숙소도 무엇 하나 불편이 “네.”를 외치는 팀원들이 사랑스럽다. “다들 다들 사랑합니다.”

여덟째 날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을 향하며 주님께 간구했다. “우리는 씨만 뿌렸으나 주님께서 키워주실 믿고 갑니다. 씨 뿌리는 도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임금순(집사, 2교구)



나와 함께 해 주신 주님

드디어 기다리던 수련회 날이 되었다. 지난 겨울수련회 때 충현기도원에 가서 선행 남들,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즐겁게 지내다 온 기억이 나서 이번 여름수련회도 기다려졌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선교 준비를 하면서 친구를 전도할 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기대가 되었다. 교회에 가지 이미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중니들 같이 떠났는데 이번엔 중등2·3부 연니와 오빠들도 함께 간다고 했다. 조장 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조가 된 친구들과 드디어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떠났다.

기도원은 겨울과는 달리 주변에 나무도 파릇파릇하고 하늘도 파래서 훨씬 정답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방을 배정받고 본격적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보물을 찾아라' 시간과 '저녁 부흥회' 시간이었다. 부흥회 시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며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도 좀 더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강대상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 자꾸만 눈물이 났다.

'보물을 찾아라' 시간에는 다섯 개의 코스를 돌며 보물이 숨겨진 지도 조각을 찾아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말씀도 외우고 축기도 하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뛰놀다 보니 1박 2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금방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성령을 따라서 전도하자!"는 목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떠나게 될 선교지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 생각된다. 다가를 주일도, 선교 날째도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진다.

김주은(중등1부)

진실된 마음의 기도

중등부 연합수련회는 교회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 수련회를 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의 진짜 핵심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나쁜 안이라 다른 중등부 학생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경공부 시간과 특강 시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과연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방법은 어떠한지 등 평소 관심 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꼭 지킬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 재미있는 코너들이 있었다. 이 코너들을 통해 조원들이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여름의 더위도 날릴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다.

마지막으로 파워부흥회, 즉 기도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왠지 모르게 속이 뽕 뚫린 것 같았다. 여러 죄악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 집에서 기도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언제나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였다. 가끔씩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도는 처음이었다. 그날 밤의 기본은 잊을 수가 없다.

1박 2일의 수련회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도 했지만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이다. 평소에는 대충 기도하던 나였기 때문에 그날 밤과 같은 느낌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킬 것이다.

최지훈(중등2부)

하나된 중등부

여름수련회 전부터 선생님과 모든 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중등1·2·3부가 연합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면서 중등부가 하나되게 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드디어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때와 코스워크를 통해 들뜬 마음이 되었는데 부흥회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특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었다. 수련회 가기 전 중등부 전체가 같이 수련회 활동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은혜로써 수련회를 잘 마친 것 같아서 감사했다.

최예진(중등1부)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

같은 조에 아는 친구 한 명 없었지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출발한 수련회였다. 하지만 친한 친구 없이 재미있고 지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난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부흥회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특히 각반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에는 바쁘지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는 우리 반 선생님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같았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박재희(중등1부)

오래된 게 더 좋았다

별 기대 없이 버스에 타고 기도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중등1·2·3부 다 같이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부흥회를 통해 확실히 느껴졌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부흥회도 여름수련회의 절정이었다는 것 같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미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 해 주신 프로그램도 재미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 다음 수련회도 이렇게 재미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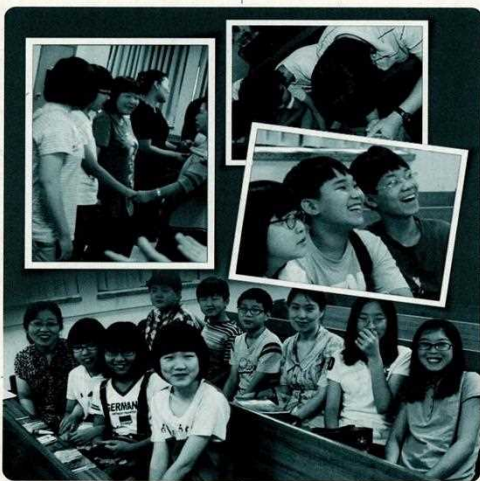
강성중(중등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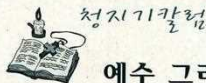
나의 소중한 보물은 예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놀다가는 일로만 생각했던 수련회였기에 이번 수련회는 정말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평소엔 친분이 없던 선배들과도 수련회를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시간 중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조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부흥회 시간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알게 해준 보물 찾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보물 찾기 시간에는 단순히 '보물 찾기'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과자 등 세상적인 물질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으며 점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 보물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야! 나의 소중한 보물은 예수님, 십자가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세상적인 보물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어이가 없었고, 내 주변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물인 줄도 모르고 세상적인 물질만 갈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시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예수님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과 고인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김한울(중등2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제가 교회를 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죄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에게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시편 118편을 통하여 "난 네 편이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할 때 그 때에 주님은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지만 항상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세상에서 저에게 잘해준 사람이 저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또 피난처였고 힘이셨으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칼과 창이나 공격 요새가 아니라 방패와 피난처로 묘사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칼을 들고 상대방의 피를 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패배라고 말하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피난처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참 위료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항상 저를 먼저 찾아주시는 나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찾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요일 3:1).



김문구
(대학부, 만리회장)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자리,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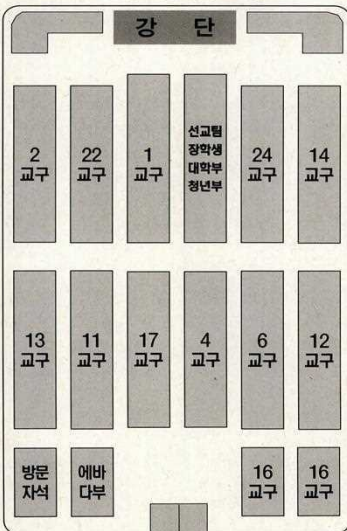
이슬람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한 선교사가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은 십자가 안에서와 삶과 죽음을 재발견하게 한다. 다음은 그의 편지의 일부분이다. "삶은 그분을 섬김 기쁨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더 나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좀 더 일찍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은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제공하는 유일한 '생명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생명길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외면하며 무시하기 일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길에는 고난과 희생만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변했다. 교회도 변하고 있다. 예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때 복음을 변호하기도 않는다. 복음과 삶은 무관해졌으며,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복음은 수단과 방법일 뿐 더 이상 유일한 생명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난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서 열린다. 십자가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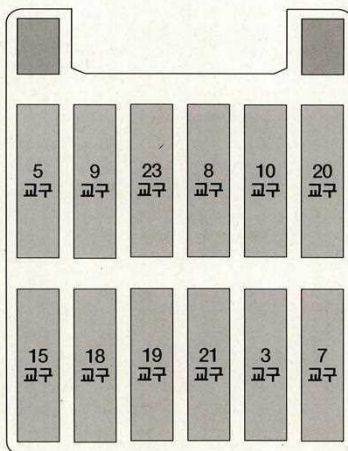
금요찬양집회 교구 좌석변경

*9월 4일 (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3층 좌석 배치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9	최진혁	10	청년1부	최경순(10)
1270	정선진	3	장년1부	방미재(3)
1271	김성구	20	장년1부	전인순(20)
1272	최홍규	20	청년1부	백지수(13)
1273	강규민	17	유치부	이경옥(20)
1274	김주영	25	외선부	
1275	정영화	3	청년1부	조동일(16)
1276	조은국	23	장년2부	권명옥(14)
1277	조은순	23	장년3부	권명옥(14)
1278	장엘레나	25	외선부	
1279	정아름	1	대학부	
1280	윤민희	23	대학부	
1281	김일중	3	장년1부	강홍선(19)
1282	박경섭	23	시랑부	정목련(12)
1283	송혜진	12	청년1부	김선미(15)
1284	이진영	17	청년1부	김기옥(5)
1285	정 현	5	청년1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